

“백작 캐릭터 만드느라 철인3종경기 하는 느낌”



MBC '죽어야 사는 남자' 최민수 철두철미 코믹연기 선보여 화제

MBC TV 수목극 '죽어야 사는 남자'의 타이틀을 알리 백작을 맡은 최민수(55·사진)는 인터뷰 자리에도 백작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알리 백작의 1인극이나 다름없는 '죽어야 사는 남자'는 지난 10일 16회에서 전국 12.9%, 수도권 14.1%를 기록하는 등 동시간대 압도적인 시청률 1위다.

최민수는 “역안정자고 뭐고 철인3종경기를 하는 느낌”이라며 웃었다.

“에너지가 방전됐다. 이제 2주 남았는데 정말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다 쏟아낸 느낌이다. 목소리도 잘 안 나온다. 그리고 내 나이가 몇이나. 진짜 힘들다.(웃음) 알리 백작 역을 맡아 12kg을 빼다. 아프고 세련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다. 그런데 연기하면서 살이 더 빠졌다. 살이 많이 빠지니 힘이 더 들 수밖에 없다. 지난주 알리 백작이 진짜 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연기를 할 때가 정점을 찍었다. 차 안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백작이 받은 충격을 표현해내야 하는데 기쁨을 짜내는 듯한 고통이었다. 그 신 하나 때문에 3일 잠을 못 잤다.”

이번 작품은 코믹 연기가 연일 화제다. 만화적 이면서도 굉장히 철두철미한 코미디다.

“누구는 집 캐리 같다, 누구는 '캐리비안의 해적'의 조니 뎀 같다고도 하더라. 그런 생각 없이 연기했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난 오히려 찰리 채플린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한다. 채플린도 지팡이를 짚고 다니지 않았나.(웃음) 쉽지 않은 캐릭터다. 외형적으로 보여줘야 할 게 많은 캐릭터인데 그 하나하나의 요소가 다 잘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우스꽝스럽게만 보이게 된다. 대사 하나, 시선 처리 하나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부숴버리고 다시 세팅해야 한다. 작은 스크래치 하나라도 나면 이상해지는 캐릭터다. 세공을 세밀하게 잘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간다. 캐릭터가 전체적인 흐름을 잘 찾아가야 한다. 그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나다”

최민수의 타고난 이국적 이미지가 이번엔 적역을 만난 느낌이다. 최민수는 이번 작품에 출연하기까지 고민이 많았다.

“처음에 제안받은 것은 1년 전이었다. 그런데 시놉시스만 읽고 대본도 안 나온 상태여서 그냥 흘려들었다가 올봄에 다시 제안을 받았다. 아이디어 상으로는 재미있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시나리오라고 판단했다. 글로는 재미있어도 영상으로 구현하기가 만만치 않아 보였고, 행간의 의미도 생각하며 이야기를 풀어내지 않으면 이상한 작품이 되기 십상이라고 생각했다. 아주 똑똑하고 세련되게 풀거나 제작비를 많이 들여야 한다고 봤다. 그래서 드라마보다는 영화가 어울리겠다고 생각했다. 한달 반을 집거한 채 미친놈처럼 고민했다. 정말 집 밖에서 나가지 못한 채 고민했다. 말투와 제스처 하나하나 고민에 고민을 했다. 수많은 생각을 하며 괴로웠다. 집사람이 그런 내 모습을 보고 걱정했을 정도다. 그렇게 고민을 했지만 막상 촬영 들어가기 전 고등선 PD에게 “날 믿지 마라. 나도 모르겠다”고 했다.

이번 작품에는 장남 유성(21) 군이 알리 백작의 아역을 맡아 특별출연했다. 화제도 쏘고, '금수저' 논란도 일었다.

“노코멘트 하고 싶다. 미성년자라면 말을 보태겠는데, 유성은 이제 청년이다. 자기 일에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이다. 또 그의 인생이다. 그 친구가 경험하고 스스로 책임질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작품은 초반 이슬람문화를 희화화한다는 논란도 있었다.

“제작진이 많은 고민과 준비를 한 것으로 안다. 그럼에도 지적이 나와서 그다음에 더욱더 조심하게 됐다. 알리 백작이 카메라를 쳐다보며 방백(다른 인물에게는 들리지 않고 관객만 들리는 것)으로 약속한 대사)을 하게 된 것도 그 시점이다. 알리 백작은 이슬람 신자도 아니고, 이 이야기는 허구의 이야기라는 것을 강조한 장치다. 정극 드라마에서 배우가 렌즈를 의식하는 것은 급기야 난 급기지만, 우리는 알리 백작의 방백을 활용해 가상의 이야기라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다.”

연협뉴스

“잘 다녀오겠습니다. 충성”

지창욱, 입대전 팬들과 만남



배우 지창욱(30·사진)이 14일 입대했다. 지창욱은 이날 오후 강원도 철원군 육군 제3사단 백골비호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 그는 5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현역으로 곧 복무를 하게 된다.

현장에는 지창욱을 배웅하기 위해 오전부터 국내외 팬들이 모여들었다. 검은색 티셔츠와 빨간색 모자 차림으로 현장에 도착한 지창욱은 취재진을 향해 거수경례하는 포즈를 취했다. 이어 팬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감사합니다”라고 짧게 인사를 전했다.

입대에 앞서 그는 미용실을 찾아 삭발하는 모습을 담은 흑백영상을 지난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또 13일에는 매거진 싱글즈코리아가 지창욱의 삭발 사진을 공개했다. 지창욱은 사진에 사인과 함께 “잘 다녀오겠습니다. 충성”이라는 글을 남겼다.

지창욱은 2014년 '기항후'를 통해 한류스타로 떠올랐으며 '힐러'와 '더케이투'를 거쳐 지난날 '수상한 파트너'를 끝냈다.

연협뉴스

박시후·신혜선, 새 주말극서 호흡

KBS 2TV '황금빛 내 인생' 내달 2일 첫 방영

박시후와 신혜선이 KBS 2TV 새 주말극 '황금빛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 KBS는 이들이 출연하는 '황금빛 내 인생'을 '아버지가 이상해' 후속으로 9월2일 첫방송한다고 11일 밝혔다.

'내 딸 서영이'를 쓴 소현경 작가의 신작으로, '흙수저'를 벗어나고 싶은 여성에게 가져 신분상승의 기회가 생기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최근 '비밀의 숲'으로 주목받은 신혜선이 돈 없고 운도 없는 흙수저 계약직 회사원 '서지인'을 연기한다. 정규직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는 서지인에게 어느날 인생을 뒤바꿀 기회가 다가온다.

박시후는 재벌3세 '최도경'을 연기한다.



박시후·신혜선

엘리스 코스만을 밝아온 해성그룹 외아들이자 전라기획실 팀장이다. 이들과 함께 이태환과 서은수, 이태성, 이단인 등이 젊은 층의 이야기를 끌어간다. 또 천호진, 김해욱, 전노민, 나영희 등의 중견 연기자들이 합류한다.

연협뉴스

TV 프로그램 1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훈장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1박 2일	30 MBC 생방송 55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	10 애니메이션 런닝맨 스페셜 55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
10	00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		50 무한도전 진짜사나이 1~2부 스페셜	40 판타스틱 듀오 2
11	10 광복절 특집다큐 유일한, 독립을 말하다	50 해피 투게더 스페셜		
12	00 KBS 뉴스 10 광복절기획 특별생방송 이제는 만나고 싶습니다		20 무한도전 진짜사나이 2부 스페셜	00 SBS 뉴스 10 백종원의 푸드트럭 강남역편 스페셜 1~2부
1	40 광복절 특집다큐 손기정, 베를린 1936	15 맨홀-이상한 나라의 필	50 MBC 뉴스	50 광복절 특선영화 암살 1~2부
2	30 행복한 지도	30 개그콘서트 스페셜	00 아트아시아 스페셜 40 시청자 TV	
3	00 광복절 기획 역사통일 골든벨	40 최강 배달꾼	10 죽어야 사는 남자 (재)	
4	00 다큐 공감 (재) 55 숨터 (재)		00 MBC 뉴스M 35 세상의 모든 방송 스페셜	15 SBS 뉴스 25 조각 놀아보기
5	00 KBS 뉴스 5 10 동물의 세계	10 슈퍼맨이 돌아왔다	35 라디오스타 스페셜	35 조각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30 2TV 생생정보	35 광복 72주년 특집 2017 DMZ 평화콘서트	45 날씨와 생활 50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아리리다
7	00 KBS 뉴스 7 35 광복절 특집 꼬레아노의 꿈	50 이름 없는 여자	55 MBC 뉴스데스크	10 생방송 TV볼로고 꿈자락
8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24 55 1대 100	55 별별머느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10	00 광복절 특집다큐 독립운동의 비밀 병기, 암호 55 숨터	00 학교 2017	00 왕은 사랑한다	00 조각
11	00 KBS 뉴스라인 40 명견만리 특선 탈출, 인구절벽 3부작	10 뮤직뱅크 인 싱가포르	10 오지의 마법사 스페셜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35 여름기획 독립영화관 (신경쇠약 직전의 뱀파이어)	50 스포츠 하이라이트	20 광복 72주년 특집 2017 DMZ 평화콘서트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왕초보 영어	09:40 성난 물고기(재)	15:35 모피와 친구들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0:30 한국기행(재)	15:45 시계마을 타기독!
《서바이벌 어드벤처》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 말레이시아 열대우림)	(마늘장아찌볶음밥, 족파 김무침)	16:30 두다다쿵
06:00 한국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45 당동당 유치원1~2(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7:15 얼마 깨투리
07:00 레이디 버그	12:10 광복절 특선 영화	17:30 꼬마버스 타요(재)
《동주》	《동주》	17:45 호기심나라 오기도
07:30 로보카 폴리	14:10 하늘에서 본 세계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07:45 출동! 슈퍼맘	- 프랑스 프로방스	19:00 너티너츠
08:00 당동당 유치원1~2	14:30 레이디버그	19:30 EBS뉴스
08:45 부릉부릉! 브루미즈	15:00 요술 상자	19:55 메디컬 다큐-7요일(재)
09:00 방귀대장 뽕뽕이	15:05 내 친구 아서	20:50 세계테마기행
09: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5:20 우주탐험가 젯	(바이킹의 땅, 로스킬레)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5일 (음 6월 24일 甲戌)	
	48년생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즉시 조치하는 것이 합당한 결과를 부른다. 60년생 합구하고 있어야만 효과를 보는 법이다. 72년생 정해진 일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84년생 궤를 같이 하지 않으려는 요소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04, 13		42년생 편하게 생각해도 된다. 54년생 전혀 다른 의미가 이중적으로 있음을 알자. 66년생 표면적인 상황이라도 그다지 별 의미는 없다. 78년생 당황하거나 머뭇거리면 아니 된다. 90년생 배려에 힘입어 풍성함을 누리는 운로이다. 행운의 숫자 : 18, 77
	49년생 상대로부터 인정받을 수도 있었다. 61년생 아직은 현저함이 보이지 않는다. 73년생 일관된 마음으로 지속되어야 의미를 찾을 수 있다. 85년생 성향과 규모에 따라 대응 방법을 달리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행운의 숫자 : 37, 44		43년생 종류는 같지만 전혀 다른 것이다. 55년생 생색만을 내려는 이가 보인다. 67년생 잘 준비되어 있는지 일일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79년생 전체적인 국세에 따르는 편이 낫다. 91년생 서로 간의 관계를 감안하라. 행운의 숫자 : 31, 90
	50년생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에 따라 천양지차가 날 것이다. 62년생 내부적인 면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74년생 치밀한 기획이 선행되어야 목적하는 바를 이루리라. 86년생 방심한다면 목표에 거의 다 이르러서 놓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77, 56		44년생 뜻밖의 행운이 보이나 놓치기 말고 잘 활용토록 하라. 56년생 관계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 68년생 가히 남들이 같 것이다. 80년생 모두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2, 31
	51년생 자연스럽게 처리될 것이나 노파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63년생 전반적인 물갈이가 예상된다. 75년생 그 무엇보다도 바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을 접하라. 87년생 한 번 선택한다면 돌이킬 수 없다. 행운의 숫자 : 10, 94		45년생 뜻이 있는 곳에 분명히 길이 있느니라. 57년생 사람들과의 만남이 유익하다. 69년생 원인 불명의 돌발적인 일이 터질 수도 있느니라. 81년생 중간 역할을 잘 해주어야만 타인들로부터 원망을 듣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62, 94
	52년생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64년생 잘만 활용하면 생산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나. 76년생 모순점을 차지하는 합리적인 방안의 수립이 시급하다. 88년생 본래의 의지대로만 실행하면 무난하다. 행운의 숫자 : 85, 20		46년생 기능을 충분히 해 줄 것이다. 58년생 이해득실에 얽매지 않는 것이 효과적이다. 70년생 형편대로 처세해야 무리가 따르지 않는 법이다. 82년생 진행되는 과정에서 명쾌하게 정리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0, 67
	53년생 복이 들어오고 있으니 두 눈 똑똑히 뜨고 맞이하자. 65년생 원료가 좋아서 고급 제품이 생산되는 이치이다. 77년생 발성을 방지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절실하다. 89년생 치밀하게 구성되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86, 33		47년생 허울 좋은 명분 보다는 알찬 실속을 지르는 것이 이익이다. 59년생 괜히 헛고생하면서 시간만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71년생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로 바쁘다. 83년생 기대에 부응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61, 28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